

우리 나라 經濟活動의 長期的·短期的 變化와 示唆點(1)

金 大 逸

본 논문은 1985-1995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저학력 및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미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태보다는 실업 상태로 경제활동에 잔류할 확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동 구조변화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저학력 및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의 입지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학력 및 중·장년층의 취약 근로자의 市場性(marketability)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실업증가의 상당부분은 부가노동자 효과를 통한, 더욱 촉진된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가 노동력은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자 흡수를 목적으로 한 실업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序 論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왔고,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많은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은 노동수요의 급속한 팽창을 유발하였고, 이는 고용 증가 및 임금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급속히 팽창한 노동수요는 일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의해, 그리고 일부는 농촌지역으로부터 산업화 지역으로의 勤勞者 移住(urban migration)를 통해 충족되었다(Kim and Topel(1995)). 이 결과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는다. 우선 인구 증가율 감소와 농촌지역의 청년층 고갈은 그간 탄력적으로 공급되었던 신규 노동력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제원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하였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노동시장에 중요한 제도적 변수로 등장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확대로 인하여 노동력이 고학력화되었으며, 노동력 구성에서 여성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도 1970년대말 시작되었던 중화학 공업부문 육성과, 1980년대말 제조업 구조변화 등, 산업구조가 고급 인력 중심으로 개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수요 및 공급 측면의 변화는 고용구조와 임금구조의 균형을 재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라 할 수 있는 실업의 내용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한 경제내 노동시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공급 및 수요의 성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력 수급의 유연성,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해 실업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노동시장에 대한 선진국간의 국제 비교에 있어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유연한 노동시장에 기인한 성공적인 사례로,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고용보호 관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다(OECD(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 실업률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시장과 가계를 잇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으며, 이러한 우려는 1997년말 촉발된 최근의 경제위기를 통해 실업이 급증한 점에서도 일부 입증되고 있다. 과거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1980년의 경기 침체기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실업률 변동을 기준으로 할 때 1997-1998년 기간 동안 실업자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실업률은 4.2% 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매우 비정상적인 실업 증가가 아닐 수 없다는 시각이다.⁽²⁾ 이러한 비교는 경제 위기 이전의 낮은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일(1999a)].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 고용구조의 거시적·미시적 특성과 그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 구조의 거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 추세 변화와 단기적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활동 구조의 미시적

(2) 실업자 수는 1997년 연평균 55만 6천 명에서 1998년 연평균 146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6%에서 6.8%로 급증하였다(통계청(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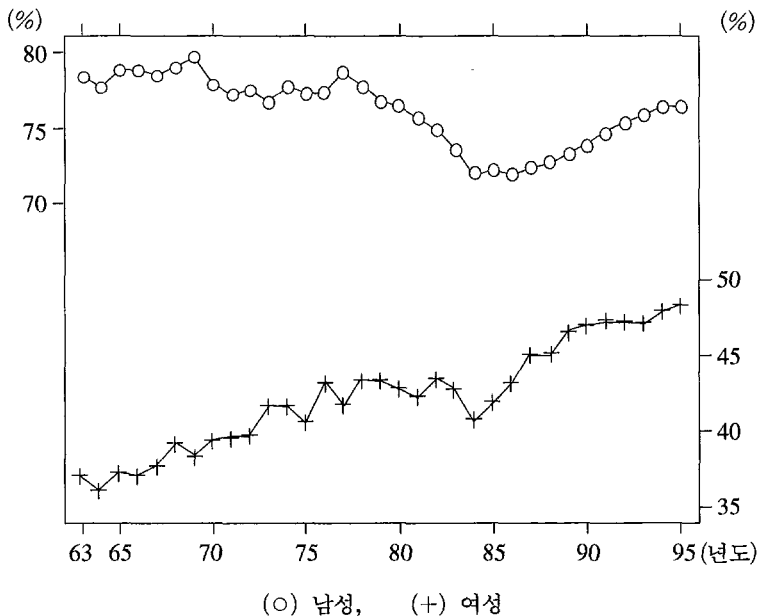
특성을 분석하는데, 많은 부분 실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실업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수준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2. 經濟活動構造의 巨視的 特性

2.1. 經濟活動 構造의 變化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왔다. 그 결과 1960년대 57%의 수준에 머물던 참가율은 1970년대말 6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1984년 55.8%까지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1995년에는 62.2%까지 상승하였다. 1984-1997년 기간 동안 1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이 약 2%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매년 2.8%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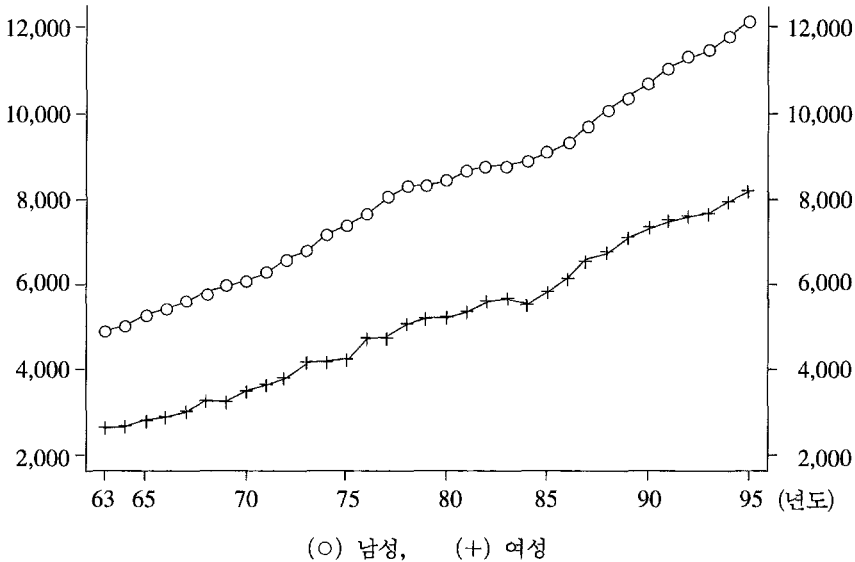
이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있어 특기할 점은 여성의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림 1>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대초 80%에 이르고 있으나, 1985년 7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76%에 이르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회복



<그림 1> 性別 經濟活動 參加率: 196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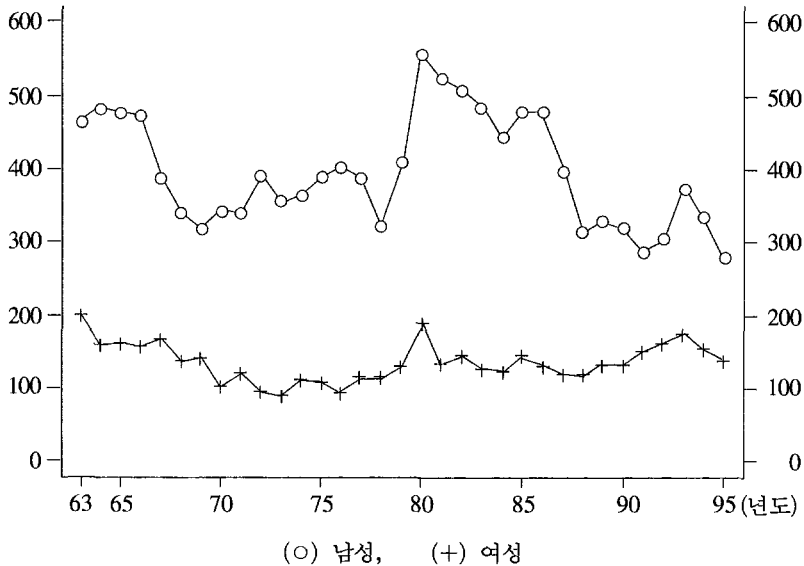
세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도 1970년대 초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1970년대초 40% 수준에서 1995년에는 4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經濟活動性(labor market attachment)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³⁾

한편 이와 같이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이 증가함에 있어서 경제활동 유형을 고용과 실업으로 구분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취업자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1963년 약 7백 3십만 명 수준에 머물던 취업자 수는 1995년에는 2천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1963-1995년 기간 동안 연평균 2.4%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의 성별 차이는 남성 고용인구가 절대적으로 큰 데서 일부 기인하고 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남성의 고용 증가세



<그림 2> 就業人口의 變化(1,000名): 1963-1995

(3) 여성의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수요의 증가와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의 市場性(marketability)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등 여성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3차 산업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이라는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희진(1999)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 가운데 36시간 미만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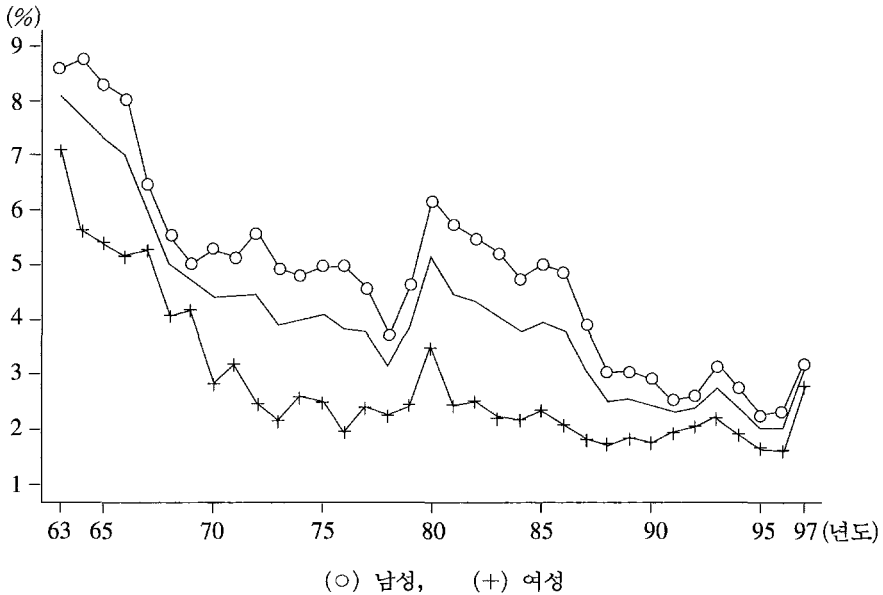


〈그림 3〉 失業人口의 變化(1,000名): 1963-1995

가 둔화되었던 점에서도 기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취업인구 가운데 여성비중은 1960년대 30% 수준에서 1995년에는 40%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적 증가추세를 보인 취업자와는 달리 실업인구는 큰 폭의 단기적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장기적 추세변화는 약한 편이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인구는 1960년대 초반 70만명 수준에서 1970년대 초반 50만명으로 하락하였다가 1980년대 초반 6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1995년에는 4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실업인구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업인구의 단기적 변동은 대부분 남성 실업인구의 단기적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1963-1995년 기간 동안 여성 실업인구는 10-20만명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이었던 반면 남성 실업인구는 1963년 50만명에서 1973년 35만명으로 하락하였다가 1980년 5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1995년 30만명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보여왔다. 특히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급격한 남성 실업인구의 상승은 당시 부진하였던 고용 증가와 맞물려 남성 실업률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인구는 단기적으로 매우 큰 변동폭을, 장기적으로는 약한 추세만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의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1960년대초에 8%를 상회하던 실업률은 1970년대 4%대로 하락·안정되었다가 1970년대말 1980년대초



〈그림 4〉失業率變化: 1963-1995

2차 오일 쇼크등의 영향으로 5%대로 상승한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6년에는 2%까지 하락하는 등 1990년대 전반에 걸쳐 3%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 실업률이 여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변동폭도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뒤에 논의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성별 차이가 실업의 거시적·미시적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經濟活動과 景氣變動間的 相關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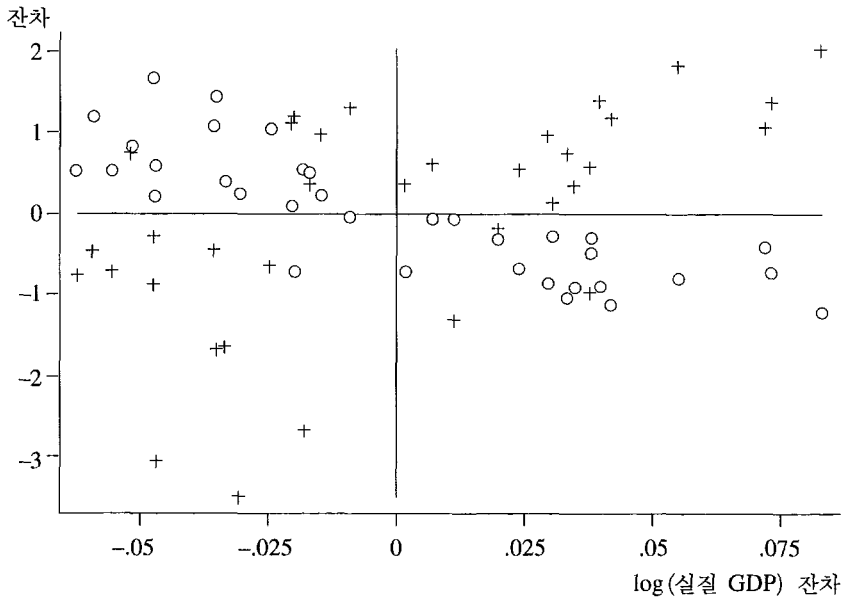
경제활동구조는 경제성장을 및 단기적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실업률의 장기적 감소추세가 주로 경제성장의 효과라면, 이러한 추세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등락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단기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업률 및 실업률과 단기적 경기변동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로 한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한 취업률 및 실업률의 반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변동의 지표를 선택하여야 하고, 둘째, 장기적 추세가 존재하는 시계열 자료에서는 그 추세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단기적 경기 변동의 지표로 국내 총생산(GDP) 및 실질 성장률을 고려하고, 장기적 추세는 각 시계열 변수가 시간과 線型關係(linear trend)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최소자승회귀법을 통해

〈表 1〉 巨視 示系列 變數의 長期 趨勢 推定式(1963-1997年)

종속변수(X)	취업비중	실업률	log(실질 GDP)	실질 성장률
β 의 추정치	0.205	-0.137	0.080	-0.058
(표준오차)	(0.023)	(0.011)	(0.001)	(0.055)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 취업율 잔차, (o) 실업률 잔차

〈그림 5〉 雇傭指標와 景氣變動

장기적 추세를 제거한다.

$$(2.1) \quad X_t = \alpha + \beta \cdot t + \varepsilon_{xt}$$

식 (2.1)에서 종속변수 X_t 로서는 각년도(t)의 취업비중(=취업자/인구), 실업률, 실질 GDP 및 성장률 등이 고려된다. 1963-1997년의 35년간 자료를 적용하여 식 (2.1)을 추정 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표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취업비중 및 실질 GDP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 성장률은 추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해 추세를 제거한 뒤 얻어진 殘差(residual)를 비교한 결과 고용지표와 경기변동지표간에 밀접한 관계가 나타난다. 우선 취업비중 및 실업률의 잔차와 실질 GDP 잔차와의 관계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취업률(+로 표시)의 경우 로그 실질 GDP의 잔차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로 표시)의 경우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수량화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2.2) \quad \begin{aligned} \varepsilon_{et} &= 0.000(0.190) - 18.818(4.639) \cdot \varepsilon_{yt} \\ \varepsilon_{ut} &= 0.039(0.089) - 19.721(1.736) \cdot \varepsilon_{yt} \end{aligned}$$

위 식에서 ε_{et} , ε_{ut} 및 ε_{yt} 는 각각 취업비중, 실업률 및 로그 실질 GDP에서 추세를 제거한 잔차이다. 이 결과는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1 로그 포인트 증가할 경우 취업률(=취업인구/인구)은 0.19% 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0.20% 포인트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단기적 경기변동의 지표로 실질 GDP 대신 성장률을 사용하여 식 (2.2)와 같은 추정을 한 결과 그 상관계수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의 경우에는 그 추정계수가 0.011이고 표준 오차가 0.087로서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업률의 경우에는 추정계수가 -0.083, 표준 오차가 0.039로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추정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오쿤의 法則(Okun's Law)에 의하면 실업률의 경기적 변동을 추정함에 있어 실업률 변화와 실질 성장률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실업률의 변화와 실질 성장률의 관계를 1963-1997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 \quad \text{실업률 변화} = \text{상수} - 0.091(0.020) \cdot \text{성장률}_t + 0.008(0.006) \cdot t$$

식 (2.3)의 결과는 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률은 0.09% 포인트 하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⁴⁾ 이러한 추정결과는 위에서 본 실질 성장률과 실업률간의 관계보다 훨씬

(4) 오쿤의 법칙은 실업의 경제비용을 추정하는 식으로서 실업률 변화에 따른 성장률 변화를 추정하고 있고, 그 결과 추정된 Okun 계수에 역수를 취하여 성장률의 실업 증감효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실업의 경기변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 (3.3)과 같이 실업률 변화를 실질 성장률에 회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식 (3.3)에 의한 추정치와 Okun 계수의 역수 가운데 어느 것이 실업률의 경기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는 기본적으로 추정식의 설명변수(성장률 또는 실업률 변화)가 포함하는 測定誤差(measurement

〈表 2〉 雇傭指標와 景氣變動: 性別 差異(1963-1997年)

설명변수	중속변수		취업률 잔차		실업률 잔차		실업률 변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log(GDP) 잔차 (표준오차)	19.691 (7.171)	17.239 (3.622)	-16.399 (2.240)	-13.156 (2.684)	—	—	—	—
실질 성장률 (표준오차)	—	—	—	—	-0.110 (0.027)	-0.059 (0.028)	—	—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한편 고용지표와 경기지표와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별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식 (2.2)와 같이 취업비중 및 실업률에서 장기추세를 제거한 잔차를 로그 실질 GDP의 잔차에 회귀분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그 계수의 절대값이 크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식 (2.3)과 같이 실업률 변화를 성장률에 회귀분석한 경우, 남성에서의 계수는 여성의 계수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여성 고용보다는 남성 고용이 경기변동에 보다 밀접하게 연동함을 시사하고 있고, 특히 실업률의 경우 여성 실업률은 경기변동(성장률)에 상당히 둔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취업률 및 실업률의 잔차를 log(GDP) 잔차에 회귀한 분석에 의하면 남녀별 격차가 취업률보다는 실업률에서 다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가 하강할 때 남녀 모두의 고용이 감소하지만, 이 가운데 실업의 증가로 전환되는 경향이 여성에서 약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여성의 경우 경기 하강시 실적이 구직활동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본 결과와 일관되게 남성의 경제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rror)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노동경제학에서 상이한 노동력간의 대체 탄력성을 추정할 경우 상대임금을 고용비율에 회귀하여 그 추정치의 역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고용비율이 임금비율보다 작은 오차를 갖고 추정된다는 경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Katz and Murphy(1992)). 일반적으로 성장률은 전체 경제에서 집계되는 반면 실업률은 모집단이 아닌 표본 집단에서 추정되기 때문에 실업률의 측정오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經濟活動構造의 微視的 特性

제2장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은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적 변동은 대부분 남성실업자의 단기적 변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실업인구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남성에 비하여 확연히 낮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미시적인 측면, 즉 개별 근로자의 경제활동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 구조의 미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經濟活動人口의 構成 變化

고용 및 실업인구의 변화를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리고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 특히 여성의 진출과 고학력화는 우리나라 노동시장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등에서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근로자 유형별 실업률 등은 외국 사례와 매우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우선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表 3>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취업비중(=취업인구/전체인구)은 1985-1995년 기간 동안 남녀 모두 8% 포인트 가량 증가하여 남성은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5년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던 여성인구 중 6명에 1명 꼴로 1995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고학력 인구의 취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에 있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남녀 모두 고졸 미만의 저학력 인구의 취업비중은 1990년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졸 인구의 취업비중은 소폭 상승, 그리고 초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취업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취업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인 취업증가를 보이고 있다.⁽⁵⁾

한편 실업에 있어서는 우선 횡단면적으로 저학력 인구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

(5)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수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30-49세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95%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들 인구층에서 더 이상의 노동력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表 3〉 人口 類型別 就業比重 및 失業率

(단위: %)

	취업비중			실업비중			실업률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 전체	52.4	58.4	60.7	2.2	1.5	1.3	4.0	2.5	2.0
남자	66.1	71.8	74.8	3.5	2.2	1.7	5.0	2.9	2.3
여자	39.6	46.1	47.5	1.0	0.8	0.8	2.4	1.8	1.7
(2) 교육정도별									
남자: 고졸 미만	58.8	62.1	61.3	2.3	1.1	1.0	3.8	1.7	1.6
고졸	83.9	85.7	88.9	5.6	2.9	2.2	6.3	3.2	2.4
초대졸 이상	63.5	71.9	74.5	4.1	3.5	2.1	6.0	4.6	2.7
여자: 고졸 미만	39.1	45.3	44.3	0.4	0.3	0.3	0.9	0.6	0.6
고졸	43.9	49.6	52.1	2.2	1.5	1.2	4.8	2.9	2.2
초대졸 이상	31.9	42.0	49.7	3.5	2.6	1.8	9.8	5.8	3.5
(3) 연령별									
남자: 20세 미만	8.9	8.1	7.1	1.2	1.0	0.7	12.1	11.1	9.4
20-29세	69.5	70.9	69.8	7.1	4.9	3.8	9.3	6.4	5.2
30-39세	92.7	95.1	95.4	3.6	1.9	1.6	3.8	2.0	1.7
40-49세	91.3	93.4	94.8	3.1	1.6	1.3	3.3	1.7	1.4
50-59세	82.2	86.9	87.4	2.3	1.4	1.1	2.7	1.5	1.2
60세 이상	45.1	50.7	55.3	0.3	0.4	0.4	0.6	0.7	0.6
여자: 20세 미만	12.7	13.7	10.1	1.4	1.4	0.9	9.7	9.4	8.2
20-29세	43.8	52.3	55.3	2.2	2.0	2.2	4.8	3.7	3.8
30-39세	46.6	51.8	51.7	0.5	0.5	0.4	1.0	0.9	0.8
40-49세	58.1	61.6	63.5	0.4	0.3	0.4	0.7	0.5	0.7
50-59세	50.8	57.8	56.6	0.1	0.1	0.2	0.2	0.3	0.4
60세 이상	19.9	27.2	29.6	0.0	0.0	0.1	0.1	0.1	0.2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 1985, 1990, 1995.

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저학력 인구의 실업률이 높은 외국의 경우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⁶⁾ 이 결과의 배경에 대한 분석은 본 장의 말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직자의 실업진입률이 저학력 근로자에게서 매우 낮은 점과⁽⁷⁾

(6) Murphy and Topel(198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68년부터 198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저학력 인구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제도와 저학력 근로자의 농수산·건설업 편중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미국이나 선진 유럽국가의 경우 失業保險(unemployment insurance) 등의 제도로 인하여 실직자가 실업상태에 있음을 밝힐 동기가 충분히 주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인구에게 이러한 유인이 부여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또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라 아직도 이러한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

고학력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고졸 미만의 인구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⁸⁾

실업률의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인구층에서 실업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다소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력별로 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전학력에서 실업비중이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저학력보다는 고학력 인구에서 실업비중의 감소가 돋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학력별 취업비중의 변화와 연계시켜 보면 1990년대에는 저학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취업+실업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나 고졸 이상 인구에서는 취업비중의 증가가 실업비중의 감소를 상회하여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高學歷化(extensive margin)와 저학력 인구의 參加率減少(intensive margin)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에서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실업이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20세 미만 여성과 3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실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⁹⁾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빠른 취업비중 증가를 보인 20대 여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대부분 연령층에서 실업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취업비중이 크게 증가한 6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실업비중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비중의 증가와 실업률 변화가 정의 관계(실업률도 같이 증가 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를 보이는 것은 그 유형의 인구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⁰⁾

히 저학력 근로자일수록 농업이나 건설업 등 계절변동이 심한 업종 및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확률도 높을 뿐더러 실직시 구직보다는 다음 성수기를 기다리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활동성이 낮다. 결과적으로 非勤勞(joblessness)의 비중(=1-취업비중)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유로 저학력 인구의 실업률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8) 청년층의 실업이 높은 것은 주로 적성에 맞는 職場探索(job shopping)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한 데서 연유한다는 가설이 지배적이다(e.g. Topel and Ward(1992)).
- (9) 20대 미만 여성의 경우는 고학력 추세에 따라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결혼 및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퇴장효과가 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주호(1996)).
- (10) 특히 여성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동시에 서비스업 및 도소매, 숙박업 등 여성을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 유형별로 실업률이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 한편 인구분포도 변화함에 따라 실업인구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表 4>에 나타난 실업인구의 구성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화·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실업인구의 여성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실업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1985년 22.8%에서 1995년 33.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화 경향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남성 실업자의 빠른 감소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고학력화는 1990년대 초반보다는 주로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5-1990년 기간 동안 남성 실업인구 중 고졸 미만 학력의 비중은 14.9%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 및 초대졸 이상 학력의 비중은 각각 2.6% 포인트와 12.3% 포인트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고졸 미만의 비중은 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 및 초대졸 이상 학력의 비중은 각각 1.9% 포인트와 6.1% 포인트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고학력화 현상은 1990년대에 뚜렷한 둔화를 보여 남성의 경우 고졸 미만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남녀 모두 전체 인구의 고학력화가 1990년대 초반에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차이는 결국 학력별 실업 비중의 차이에

〈表 4〉 失業人口의 構成 變化

(단위: %)

	남자			여자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구성비 ¹⁾	77.2	70.7	66.8	22.8	29.3	33.2
교육정도별 ²⁾						
고졸 미만	38.2	23.3	21.5	26.8	18.8	18.2
고졸	42.3	44.9	47.9	48.4	50.3	50.7
초대졸 이상	19.5	31.8	30.6	24.8	30.9	31.1
연령별						
20세 미만	6.5	6.6	4.6	21.2	20.1	10.7
20-29세	48.7	48.7	46.3	60.9	58.2	64.3
30-39세	22.2	21.5	24.6	9.9	12.5	11.5
40-49세	14.6	13.0	13.8	6.5	6.3	8.6
50-59세	7.3	8.4	8.2	1.4	2.2	3.7
60세 이상	0.7	1.7	2.2	0.1	0.6	1.3

註: 1) 구성비는 전체 실업인구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2) 이하의 구성비는 각 성별 실업자내에서 연령 또는 학력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 1985, 1990, 1995.

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업인구의 학력별 구성이 1990년대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은 인구의 고학력화가 계속 진행되는 효과와 고학력 인구의 실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인구의 고령화 및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실업비중 증가에 따라 실업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3%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실업인구의 연령별 구성이 1990년대에 들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1990-1995년 기간에 20세 미만 여성의 실업비중이 9.4% 포인트의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20대의 비중은 6.1% 포인트,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4.5%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 기간 동안 20세 미만 여성의 실업비중이 1.4%에서 0.9%로 크게 하락한 반면 20대와 40대 여성에게서는 실업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經濟活動間 移轉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¹²⁾

경제활동의 동태적 분석은 경제활동구조의 미시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도 한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실직률과 입직률을 보이는 반면 다른 노동시장에서는 낮은 실직률과 낮은 입직률을 보인다면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동태적인 노동시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1년간 경제활동 이동상황을 <表 5>에 수록하였다.⁽¹⁴⁾ 표의 첫 행에는 취업상태의 근로자가 익월에도 고용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확률을, 둘째 행에서는 익월에 실직하여 실업상태로 전환될 확률을, 세 번째 행에서는 실직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을 계산하였다. 나머지 행들도 유사하게 실업상태에서 각 경제활동 분류로 이동할 확률과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이동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T_{A,B}$ 는 A상태에서 B상태로 전환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A, B는 각각 취업

(11) 1990년대 고학력자의 실업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주로 실직률의 감소와 실직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할 확률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장 밑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2) 경제활동의 동태적 분석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개인별 경제활동 이동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별 패널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1년간 추적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이 패널자료의 구성은 김대일(1999a, b)에 잘 설명되어 있다.

(13) 이러한 해석은 후자의 경우 未就業者(jobless population)의 대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OECD(1996)).

(14) 각 연도별로 12개월에 걸친 개인별 패널을 이용하여 各月別 經濟活動 移動率(Monthly Transition Probability)을 계산한 뒤 이의 12개월 평균값을 수록하였다.

〈表 5〉 月別 經濟活動 移動率

(단위: %)

	남자				여자			
	1987	1990	1993	1995	1987	1990	1993	1995
고용 → 고용 ($T_{E,E}$)	96.6	97.3	97.5	98.2	92.0	94.3	93.1	96.3
→ 실업 ($T_{E,U}$)	0.9	0.7	0.8	0.5	0.4	0.4	0.4	0.3
→ 비경활 ($T_{E,N}$)	2.5	2.0	1.7	1.3	7.6	5.3	6.5	3.4
실업 → 고용 ($T_{U,E}$)	29.3	29.6	28.7	24.9	32.7	31.5	25.8	26.5
→ 실업 ($T_{U,U}$)	62.9	61.5	65.1	70.1	55.3	52.1	61.4	65.8
→ 비경활 ($T_{U,N}$)	7.8	8.9	6.2	5.0	12.0	16.4	12.8	7.7
비경활 → 고용 ($T_{N,E}$)	6.8	5.1	7.9	6.1	7.1	5.1	6.5	3.6
→ 실업 ($T_{N,U}$)	0.9	1.1	0.9	0.5	0.2	0.4	0.3	0.2
→ 비경활 ($T_{N,N}$)	92.3	93.8	91.2	93.4	92.7	94.5	93.2	96.2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85-1995.

상태 (E), 실업상태 (U) 및 비경제활동 상태 (N)의 값을 지닌다.

취업 근로자의 취업 지속률($T_{E,E}$)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1987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96.6%, 여자는 다소 낮은 92%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취업 지속률은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1987-1995년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의 취업 지속률은 1.6% 포인트 증가하였고 여성의 취업 지속률은 이보다 큰 폭인 4.3% 포인트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1995년에는 남녀 모두 96% 이상의 취업지속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자의 실직률($T_{E,U} + T_{E,N}$)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구성 면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실직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는 비율이 1987년 72.4% ($= (2.5/3.4) \times 100$) 수준에서 1995년에는 73.7%로 1.3% 포인트의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1987년 95.3% ($= (7.6/8.0) \times 100$)에서 1995년에는 91.3%로 오히려 4.0% 포인트의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실직률은 남성과 같이 감소하고 있으나 실직시 실업이라는 형태를 통해 경제활동상태에 잔류할 확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자의 구직률($T_{U,E}$)은 1987년에는 남녀 각각 29.3%와 32.7% 수준을 기록하여 매월 평균 1/3 정도의 실업자가 취업하는 것을 나타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취업률은 빠른 감소추세를 보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자의 경우 24.9%까지 하락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도 26.5%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구직률 하락은 일차적으로는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한편 이와 같은 취업률 하락과 함께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가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T_{U,U}$)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취업률 감소폭을 크게 상

회하고 있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할 확률($T_{U,N}$)이 남녀 모두에게서 하락하고 있음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여성 실업자에게서 강하여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은 1990-1995년 기간 동안 남녀 각각 8.6% 포인트와 13.7% 포인트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에 실패하였을 경우 실업상태에 계속 잔류할 조건부 실업 잔류율($T_{U,U}/(1-T_{U,E})$)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업자의 취업률이 하락한 것은 구직활동의 결과가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업 잔류율이 취업률 감소폭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오히려 실업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실업자의 구직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효과도 작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직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취업에 실패한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는 인구의 비중이 감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가 그 주된 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¹⁶⁾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편입될 확률이 4-8%를 보이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괴리된 인구는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는 확률($T_{N,E} + T_{N,U}$)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본 취업자와 실업자의 경제활동 이동상황 변화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이동상황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취업자가 실질시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구직에 실패할 경우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성에서 노동시장과 괴리된 인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에 있어 경제활동으로의 편입률($T_{N,E} + T_{N,U}$)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성이 경제활동성 측면에서 취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¹⁷⁾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 확률이 1990년에 비하여 오히려 1993년과 1995년에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 인

(15)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김대일(1997), 남재량(1997), 신동균(1999)을 참조하십시오.

(16) 한편 조건부 실업 잔류율의 증가는 곧 실업인구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자의 구성상 비교적 취업 가능성이 낮은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높고 한편 이러한 실업인구가 실업상태에서 잔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업인구의 구성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자의 취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1990년대 취업률 하락의 일부는 실업 구성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7) 비경제활동상태와 고용상태간의 이동에 있어 많은 부분이 계절변동이 심한 농업인구의 이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결과가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데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구의 경제활동 편입에 있어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1990년 82% (= (5.1/6.2) × 100)에서 1995년 92% (= (6.1/6.6) × 100)로 10% 포인트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 비중이 93%에서 95%로 2% 포인트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실업을 거친 경제활동 편입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업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3. 失業率 變化의 構成要因

앞서 본 경제활동상태간 이동·상황의 변화는 곧 실업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직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직시 실업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을 거쳐 경제활동으로 편입되는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실업률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구분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논리 전개상의 편의를 위하여 실업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실업인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 \quad U_t - U_{t-1} = NU_t + (1 - n_{et})\lambda_t E_t - h_{et}U_{t-1} - (1 - h_{et})n_{ut} \cdot U_{t-1}$$

U_t 는 t 기의 실업인구수를 나타내고 식의 좌변은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에 실업인구가 변화한 부분을 나타낸다. 우변의 처음 두 항은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마지막 두 항은 실업상태에서 탈출하는 인구를 나타낸다. 실업으로 진입하는 인구에서 NU_t 는 신규로 구직을 시작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인구를, $(1 - n_{et})\lambda_t E_t$ 는 실직으로 인해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를 나타낸다. 여기서 E_t 는 t 기의 취업인구를, λ_t 는 취업인구의 실직률을, n_{et} 는 취업자가 실직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한편 실업상태에서 이탈하는 인구에 있어서 $h_{et}U_{t-1}$ 은 전기의 실업인구 가운데 t 시점에서 취업하는 인구를, $n_{ut} \cdot U_{t-1}$ 은 구직에 실패한 뒤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는 인구를 나타낸다. 여기서 h_{et} 는 실업상태에서 취업할 확률을, n_{ut} 는 실업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할 조건부 확률이다. 본 절에서는 실업인구의 변화에 있어 λ_t (실직률), $1 - n_{et}$ (실직시 조건부 실업 잔류율), h_{et} (취업률) 및 $1 - n_{ut}$ (취업 실패시 조건부 실업 잔류율)에 대하여 근로자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3.3.1. 失業상태로의 進入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경로는 취업상태에서 실직과 함께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경우와 새

로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就業狀態에서 失業狀態로의 進入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는 실직률(λ_t)과 실직시 실업진입률($1 - n_{et}$)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表 6>에서는 실직률을, <表 7>에서는 실업진입률을 근로자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취업상태에서 실직할 확률(λ_t)은 근로자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表 6>에 수록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실직률이 남성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모든 학력 및 연령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일 산업내에서도 여성의 실직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실직률과 학력간에 뚜렷한 부의 관계가 존재하여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의 실직률은 고졸 미만 근로자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¹⁸⁾ 한편 연령별로는 40대까지

<表 6> 勤勞者 類型別 失職率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전체	5.5	3.6	2.5	3.4	2.4	1.7	8.5	5.2	3.6
고졸 미만	7.0	4.5	3.0	4.4	3.1	2.2	9.8	5.8	3.8
고졸	3.4	2.8	2.2	2.6	2.0	1.5	5.3	4.3	3.5
초대졸 이상	2.1	2.2	1.8	1.8	1.6	1.2	3.2	4.0	3.1
30세 미만	5.3	4.1	3.4	4.1	3.5	3.0	6.6	4.8	3.9
30-39세	4.0	2.9	1.8	1.9	1.5	1.0	8.0	5.1	3.4
40-49세	4.3	2.4	1.5	2.3	1.3	0.8	7.3	3.9	2.6
50-59세	6.5	3.5	2.1	3.7	2.1	1.4	10.5	5.3	3.3
60세 이상	12.2	7.1	4.1	9.0	5.4	3.0	17.3	9.3	5.6
10인 미만 기업	7.0	4.7	3.0	4.3	3.2	2.1	10.2	6.2	4.0
10-99인	3.7	2.6	2.1	3.1	2.0	1.5	5.2	3.8	3.1
100-299인	2.1	1.8	1.4	1.6	1.4	1.0	3.2	2.4	2.2
300-499인	1.9	1.5	1.4	1.2	1.2	1.0	3.5	2.4	2.3
500-999인	1.7	1.3	1.2	1.4	0.8	0.6	2.6	2.2	2.6
1,000인 이상	1.6	1.2	0.8	1.2	0.9	0.5	2.6	2.0	1.8
제조업	4.3	3.6	2.5	2.1	1.7	1.3	7.6	5.9	4.6
건설업	7.5	4.4	3.0	7.0	4.1	2.9	13.5	6.4	4.5
도소매 및 서비스	3.3	2.6	2.2	2.1	1.7	1.4	4.5	3.5	3.0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85-1995.

는 연령과 함께 실직률이 감소하다가 50대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50대 이후의 높은 실직률은 해고보다는 퇴직등을 통하여 고용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직률을 고용주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실직률이 낮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안정된 고용상태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계열적으로는 1985-1995년 기간 동안 실직률이 모든 근로자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985년 이후 진행된 실업률 감소의 주된 원인을 실직률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최근 다소 완화되어 1985-1990년 기간에는 실직률이 1.9% 포인트 감소하였고, 1990-1995년 기간에는 1.1% 포인트 감소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직률이 높은 저학력, 여성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에게서 그 감소폭이 커 일반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실직률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별, 학력별 격차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직장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고학력 남성의 우위는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도 소규모 기업에서 실직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전반에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실직률은 각각 2.3% 포인트와 1.5% 포인트 감소하여 1995년에는 1985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에 불과한 실직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 실직률은 1995년에도 1985년 수준의 50-7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직장의 안정성 증대와 더불어 소규모 직장의 안정성 개선이 돋보인다.⁽¹⁹⁾

업종별로는 계절변동이 심한 건설업에서 실직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도소매 및 서비스업(금융, 보험, 부동산 제외)은 다소 낮은 실직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간에 실직률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제조업 실직률이 도소매업 실직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실직률의 차이를 직장의 안정성 차이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은 산업간 구조조정이 급속히

(18) 이러한 결과를 <表 3>의 결과와 연계시켜보면 저학력 인구의 낮은 실업률이 이들 근로자의 직장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저학력자의 실직률이 높은 것은 미국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Murphy and Topel(1987)). 다음에 논의될 조건부 실업 잔류율의 분석 결과는 저학력 근로자의 낮은 실업률이 실직시, 그리고 취업 실패시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퇴장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9) 노조 조직률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1987년 노조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증가하였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행되었던 시기라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80년대말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실직률이 도소매업 실직률을 상회하는 점은 산업 구조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한편 여성의 산업별 실직률 차이가 큰 것은 곧 구조조정에 있어서 여성 노동력의 이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실직시 실업상태로 진입하여 경제활동에 잔류할 확률($1 - n_{et}$)이 여성에 있어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이미 <表 5>에서 논의한 바 있다. <表 7>에서 실업진입률을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우선 횡단면적으로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학력 실직자일수록 높은 실업 진입율을 보이고 있다. 고졸 미만의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은 남성의 경우 15.3%의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아 3-4%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거의 모든 고졸 미만 여성이 실직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 남성의 경우 고졸 미만의 남성에 비하여 거의 30% 포인트 높은 진입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11.5%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초급 대학 졸업 이상 남성의 경우 고졸 남성에 비하여 다소 낮은 실업 진입

<表 7> 失職者의 失業 進入率

(단위: %)

	남자		여자	
	1990	1995	1990	1995
고졸 미만	15.3	15.4	3.0	4.1
고졸	45.1	41.4	14.5	15.6
초대졸 이상	39.2	28.0	18.4	13.7
30세 미만	36.8	35.8	17.0	21.0
30-39세	47.6	51.4	5.7	5.7
40-49세	38.2	30.1	4.1	6.9
50-59세	15.8	15.6	2.2	3.2
60세 이상	3.7	3.4	0.4	0.2
10인 미만 기업	22.6	22.0	4.4	6.5
10-99인	45.5	37.8	16.2	15.9
100-299인	49.5	50.4	17.1	12.4
300-499인	55.7	43.2	21.9	23.3
500-999인	44.7	30.8	21.9	17.1
1,000인 이상	40.7	46.7	19.2	20.1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90-1995.

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졸 미만의 근로자에 비하여는 24% 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초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고졸 여성에 비하여 4% 포인트 높은 실업 진입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시 실업 진입이라는 경제활동성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表 6>의 실직률에 있어서도 고졸 미만과 고졸 이상 학력자간에 큰 차이가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성패와 고등학교 교육간의 밀접한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는 30대를 중심으로 역-U자형의 진입율을 보이고 여성의 경우는 젊을수록 진입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3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실업 진입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결혼,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업진입율을 실직률과 연계하여 보면 여성에게 있어 실직률은 연령과 함께 오히려 증가하거나 연령별 차이가 작아(<表 6> 참조), 여성 장년층 실업률(<表 3> 참조)이 낮은 주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실업진입율의 연령별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전직 기업규모별로는 300-499인 기업을 중심으로 역 U-자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계열적으로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 고졸 미만의 저학력 실직자를 제외하고는 실업진입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초대졸 이상의 남성에게서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1995년에는 고졸 이상 남성의 경우 실업진입율이 고졸 미만 학력 소지자에 비하여 26% 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나 초대졸 이상의 경우 그 차이는 12.6% 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초대졸 이상 여성 실직자의 실업진입율도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업진입율의 경우에도 실직률의 경우와 유사하게 학력별 격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의 실업진입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거나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表 3>에서 추론한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30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실업진입율이 감소하고 있다. 30대 남성의 경우 실직시 실업 진입율이 4.2% 포인트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8.1% 포인트의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4% 포인트의 비교적 큰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는 실업 진입율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의 효과가 아직도 작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과는 달리 40-50대 여성의 실업 진입율이 증가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장년층에까지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실업진입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전직 기업규모별로 분류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종과 300-999인 규모의 기업군에서 진입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1,000인 이상 제외)에서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업규모별 실업 진입율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제활동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10인 미만 기업(100인 미만의 기업)의 고용비중이 남녀 각각 30%(70%)와 44%(82%)에 달하여 소규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제활동성 증가는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表 6〉과 〈表 7〉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우 높은 실직률(λ_t)에도 불구하고 실업진입율이 매우 낮아 실제 고용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남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학력별로도 저학력 근로자의 낮은 실업률에 대하여 실직률은 높지만 실업진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경우 실직률이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진입율이 30대를 고비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장년층 여성의 실업진입률은 청년층 여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넷째,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에 있어서 실직률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하였고, 한편 실업진입을 감소는 실업률 감소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저학력 근로자보다는 고학력 근로자의 경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²⁰⁾ 한편 40세 이상 장년층 남성의 경우 실업진입율 감소에 따라 실업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실업진입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실업규모의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실업 진입율 증가 유형은 청년층 여성과 저학력 및 소규모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규모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직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취업자의 실업진입률($=\lambda_t(1-n_{et})$)은 1990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학력별로 각각 0.47%, 0.90% 및 0.63%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0.17%, 0.62% 및 0.74%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0.34%, 0.62% 및 0.34%의 진입률을, 여성의 경우 0.16%, 0.55% 및 0.42%의 진입률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진입률의 학력별 격차(고졸 미만 대비 초대졸 이상)는 남성의 경우에는 1990-1995년 기간 동안 0.16%포인트에서 0.00%포인트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도 0.57%포인트에서 0.26%포인트로 감소하였다.

2) 非經濟活動狀態에서 失業狀態로의 進入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비율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1985년을 기준으로 하여 남성이 0.9%로서 여성보다 세 배 가량 높은 실업진입률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의 경우 0.3%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학력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고졸 이상의 경우 1.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진입률이란 측면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갖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학력별 격차는 남성에게서 두드러져 고졸 남성의 경우에는 3.2%의 높은 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초대졸 이상의 남성도 1.5%의 진입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30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남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령별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종료됨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남성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띠고는 있으나 진입률 수준이 20-30대에서도 1% 미만에 머물러 남성에 비하여 청년층 여성의 구직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실업진입률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빠른 하락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1995년에는 1985년에 비해서도 낮은 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진입률 하락은 이들 인구의 경제활동성이 저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의 한계에 위치한 인구가 점차적으로 경제활동상태로 편입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

〈表 8〉 非經濟活動狀態로부터의 失業進入率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전체	0.5	0.6	0.3	0.9	1.1	0.6	0.3	0.4	0.2
고졸 미만	0.3	0.2	0.1	0.5	0.4	0.2	0.2	0.2	0.1
고졸	1.2	1.3	0.7	3.2	2.7	1.4	0.6	0.7	0.4
초대졸 이상	1.2	2.0	0.8	1.5	2.6	0.9	0.9	1.5	0.6
30세 미만	0.7	1.0	0.6	0.8	1.2	0.6	0.6	0.8	0.5
30-39세	0.5	0.7	0.4	4.3	3.8	2.1	0.2	0.4	0.2
40-49세	0.5	0.6	0.3	3.2	2.7	1.7	0.1	0.3	0.1
50-59세	0.3	0.4	0.2	1.4	1.4	0.7	0.0	0.1	0.1
60세 이상	0.0	0.1	0.0	0.1	0.2	0.1	0.0	0.0	0.0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85-1995.

의 구성이 경제활동성 측면에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업진입률의 하락은 전 학력 및 연령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고졸 미만의 저학력 인구의 진입률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어 1985년과 1995년을 비교할 경우 학력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1985년에는 고졸 인구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하여 4배 수준의 진입률을 보였으나, 이 비율이 1990년에는 6.5배, 1995년에는 7배로 증가하였다. 연령 증가와 함께 실업진입률이 감소하는 유형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편 높은 실업진입률을 보이던 30-40대 남성과 30세 미만 여성에게서 진입률 하락이 두드러져 연령별 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3.3.2. 失業 離脫

실업상태에서 이탈하는 경로에는 실업 진입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의 퇴장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실업자의 취업률(h_{et})과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의 실업잔류율($1 - n_{un}$)을 분석하기로 한다.

1) 失業者 就業率

실업자가 취업을 통하여 실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은 <表 9>와 같이 대체로 25-30% 수준으로 남녀간에 비슷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의 중장년층일수록 취업률이 높다. 한편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률도 낮아져 취업률에 陰의 期間 依存度(negative duration dependence)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저학력 인구의 높은 취업률이다. 실업기간에 따른 期間 依存度(duration dependence)나 연령별 취업률 격차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발견되는 유형과 유사하지만 저학력 실업자의 높은 취업률은 저학력 인구의 낮은 실업률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²¹⁾ 그러나 저학력 실업자의 높은 취업률도 실업률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들 인구의 높은 시장 이탈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저학력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選擇偏倚(selection bias)에 의하여 실업인구만을 표본으로 하였을 경우 높은 재취업률이 시현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계열적으로는 1985-1990년 기간 동안 취업률이 증가하였고 1990-1995년에는 오히려 취업률이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전 학력 및 연령 계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변동폭이 여성의 경우에 다소 크다. 1990년대에 들어 남녀 공히 저학력 실업자의 취업률이 빠르게 감소하여 실업자의 학력별 취업률 격차는 감소하고

(21) 앞서 저학력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직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원인의 하나로 저학력 실직자의 높은 노동시장 이탈률을 거론한 바 있다.

〈表 9〉 失業者의 就業率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1985	1990	1995
전체	27.3	31.0	25.7	28.2	30.5	25.2	24.5	32.0	26.6
고졸 미만	38.0	43.0	30.0	37.8	42.2	28.4	39.1	44.7	32.8
고졸	25.4	32.7	27.5	26.3	33.1	27.4	22.7	31.5	27.4
초대졸 이상	14.2	20.3	19.8	15.0	19.1	19.1	12.1	24.1	21.1
30세 미만	23.0	27.1	24.7	23.9	25.4	24.4	20.9	30.1	25.0
30-39세	33.1	39.8	29.9	33.3	40.2	28.3	30.0	39.7	34.7
40-49세	36.3	38.2	26.7	35.0	39.4	27.0	48.3	34.1	25.0
50-59세	30.7	27.6	21.4	30.2	26.5	19.7	32.7	32.8	27.9
60세 이상	40.6	49.1	26.4	35.4	48.4	24.7	36.4	32.8	25.7
(실업기간)									
3개월 이하	31.5	35.0	29.6	32.6	35.0	29.1	28.5	35.0	30.3
4-6개월	21.7	27.2	20.9	22.9	29.2	19.8	17.6	22.9	23.1
7-12개월	14.9	11.8	12.7	15.0	10.4	14.5	15.6	17.5	8.7
13-18개월	14.3	10.4	11.7	15.6	8.9	11.8	4.8	16.2	11.1
18개월 이상	17.2	9.3	11.8	16.0	9.1	14.0	13.6	9.1	—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85-1999.

있다. 이 결과를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시장수요가 감소하여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택편의의 심각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갖는다. 앞서 〈表 7〉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학력자의 실업진입률은 하락하는 반면 저학력 실직자의 실업진입률은 같은 수준을 유지(남성)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여성)에 있어서 저학력 실직자의 경우 재취업률이 높은 근로자만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데 따른 실업인구 구성상의 선택편의가 완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까지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취업률 감소는 전 연령층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1990-1995년 기간 동안 전체적인 취업률 감소가 실업인구 구성상의 변화보다는 각 학력 및 연령 계층의 취업률 감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실업인구 연령별 구성변화만을 갖고 추정하면 취업률은 오히려 증가했어야만 한다. 남성의 경우 실업인

구의 구성에 있어 1990년대에 들어 2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30대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30대 실업자의 취업률이 20대 실업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위와 같은 실업인구 구성의 변화는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남성 실업자의 취업률은 실업인구의 구성 변화에 힘입어 그 감소폭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의 취업률 감소는 장기실업의 원인이 되므로 실업기간별 취업률도 변화하고 있다. 취업률이 증가한 1985-1990년 기간 동안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의 취업률이 증가한 반면 취업률이 감소한 1990-1995년 기간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의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구직기간의 장기화를 반영하고 있다. 7개월 이상의 중장기 실업자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에 그치던 실업인구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²⁾

그러면 취업률이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되지만 일차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1985년, 1990년 및 1995년을 비교할 경우 1990년도와 1985년이나 1995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호황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는 실직률 및 실업률 하락에 따라 실업상태와 고용상태의 한계에 존재하던 인구가 점진적으로 고용상태로 편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성의 증가와 함께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의 한계에 있던 인구가 점차로 실업상태에 편입되면서 실업인구의 구성이 과거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방향으로 변화한 데 따른 영향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제활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에는 구직에 실패한 후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였을 인구가 실업상태로 잔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업인구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 就業에 失敗한 失業者의 選擇: 條件附 失業殘留率

〈表 10〉에 추정된 결과에 의하면, 실업인구가 구직에 실패할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하기보다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잔류할 조건부 확률은 우선 횡단면적으로 볼 때 60-80% 수준으로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 실업자가 여성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고학력 근로자보다 저학력 근로자에게서 위 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역시 실업인구 구성상의 선택편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남성과 청년층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2) 김대일(1997), 신동균(1999) 등에 의하면 1990년대 뚜렷한 실업의 장기화 추세가 존재하였다.

〈表 10〉 失業者의 條件附 失業殘留率(就業에 失敗할 경우)

(단위: %)

	남자		여자	
	1990	1995	1990	1995
고졸 미만	83.7	84.5	69.0	78.4
고졸	77.9	87.0	68.4	80.9
초대졸 이상	67.3	75.8	58.7	71.7
30세 미만	73.3	80.8	69.7	78.6
30-39세	86.8	89.1	62.9	76.8
40-49세	83.4	85.8	54.1	77.0
50-59세	66.8	80.7	48.4	60.7
60세 이상	73.0	74.8	54.6	85.7

資料: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구성된 개인별 패널, 1990-1995.

시계열적으로는 실업자의 실업잔류율이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학력계층이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학력별 실업잔류율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50대의 잔류율 증가가 두드러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이상 여성의 잔류율 증가폭이 매우 크다. 이 결과도 실직시 실업잔류율 변화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를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실업 이탈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의 경우 1985-1990년 기간에는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취업에 실패할 경우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도 높아져 실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둘째, 취업률 변화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취업에 실패할 경우 실업에 잔류할 확률은 여성에게서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셋째,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 실업자의 실업잔류율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실업이탈률($h_{et} + (1 - h_{et}) \cdot n_{et}$)의 변화는 대부분 취업률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실업이탈률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고 있다. 넷째, 연령별로는 1990년대에 들어 남녀 모두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취업에 실패한 실업자의 실업잔류율은 중장년층에서 상승하였다. 따라서 장년층의 실업이탈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3.3.3. 失業 進入 및 離脫의 綜合效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각 연도별 실업진입률을 취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새로이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실업이탈률을 실업상태에서 취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탈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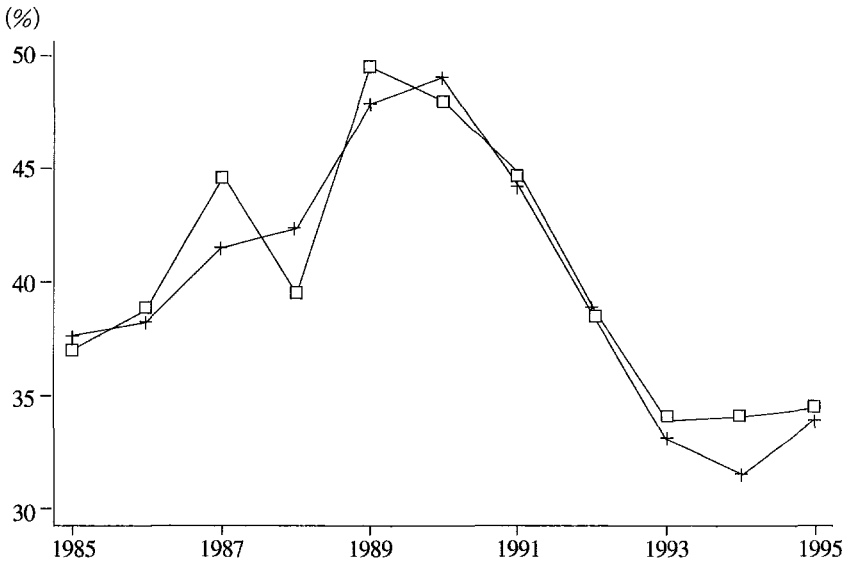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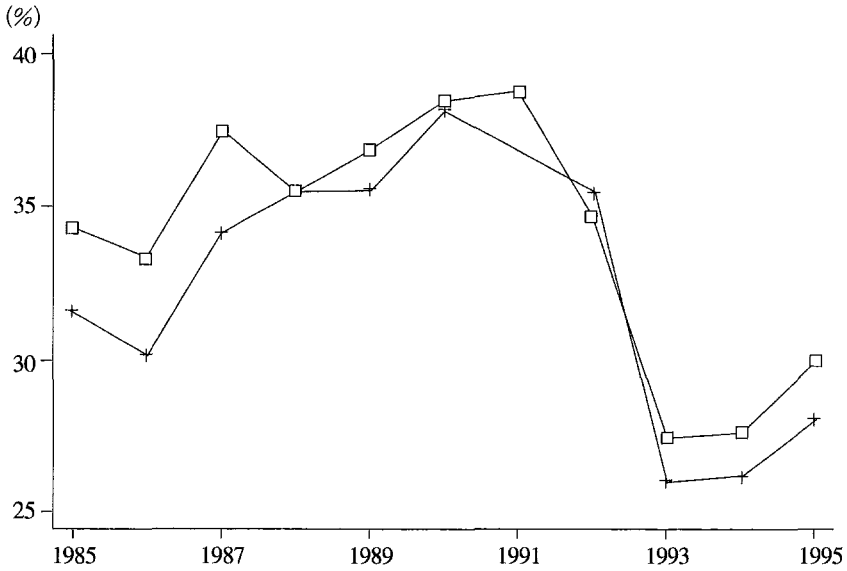
$$(3.2) \quad \begin{aligned} \text{실업진입률} &= \frac{NU_t + \lambda_{et}(1 - n_{et})E_t}{U_t} \\ \text{실업이탈률} &= \frac{h_{et}U_{t-1} + (1 - h_{et})n_{ut} \cdot U_{t-1}}{U_{t-1}} \end{aligned}$$

이와 같이 추산된 실업진입률 및 실업이탈률은 성별로 <그림 6>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6>의 결과에 의하면, 1985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실업률과 달리, 실업 진입률과 이탈률은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진입률은 1985년 32%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38%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1년과 1993년 기간에는 진입률이 급속히 하락하여 1993년에는 26%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탈률은 전반적으로 진입률과 매우 유사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대체적으로 진입률을 상회하고 있어 실업률의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진입률과 이탈률이 대체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6-1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태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계열적 변화는 남성과 매우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입률과 이탈률 모두 1985-1990년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고 이후 1993년까지 급속하게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유형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같이 실업이탈률이 진입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 기간 동안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초반기가 실업률이 하락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는데도, 그 내면에 있어서 실업진입률과 이탈률의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의 하나로 1980년대 후반에 급속히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1986년 이후 3년여간 지속된 3저 현상에 따른 해외수요의 증가는 제조업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임금 상승을 유발하였고, 1987년부터 활발히 진행된 노조활동도 임금 상승에 촉매역할을 하였다. 한편 1988년 이후 진행된 주택 200만 호 건설도 저임금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1992년에 이르기까지 높은 임금상승률을 시험하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이같은 임금상승의 결과로 1980년대 후반에는 급속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섬유 등 저임금 부문의 고용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등의 비



남자: (□) 실업진입률, (+) 실업이탈률
 여자: (□) 실업진입률, (+) 실업이탈률

〈그림 6〉 失業 進入率 및 離脫率

중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력이 재배분되면서 실업상태로의 진입 및 실업상태로부터의 이탈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3저 호황 및 건설 특수가 종료된 1992년 이후 노동수요의 증가가 둔화하면서 이탈률 및 진입률도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結 論

본 논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구조의 변화를 거시적 특성과 미시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특성으로는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의 꾸준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취업자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결과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1985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취업자 증가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증감은 많은 부분 남성 실업자의 증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 실업인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경제활동구조의 미시적 특성을 살펴볼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經濟活動間 移轉(transition in economic activities)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해 있기보다는 실업상태로 경제활동에 잔류할 확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더욱이 실업을 거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만을 왕래하는 인구의 비중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과거 한계적으로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였던 여성이 점차 시장활동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성 증가는 곧 노동공급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노동공급의 증가가 경제위기와 함께 더욱 촉진되었을 가능성이다. 일차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면서 유발되는 附加 勞働者 效果(또는 노동공급의 소득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발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차적으로 실업대책 등으로 인해 失業의 相對的 價値(value of job search relative to non-participation)가 상승하면서 노동공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다.⁽²³⁾ 둘째, 경제활동성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한계적으로만 참가하는 유형의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경제위기와 함께 증가한 실업인구(실업률)가 경제위기 이전의 수

(23)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김대일(1999b)을 참조하시오.

준으로 쉽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미취업자의 선택이 비경제활동인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활동성의 증가는 미취업자가 점진적으로 실업을 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급증한 실업 인구 및 실업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등락과의 관계가 과거에 비하여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 분석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실업률은 0.09% 포인트 하락해야 하는데, 이는 1997-1998년 기간 동안 실업률이 1% 포인트의 소폭 상승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제 실업률 증가폭 4.2%의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최근 실업의 등락 폭이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실업률 변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노동수요 감소에 의한 실적규모의 증가와 취업률 하락이겠지만, 본 논문의 결과는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 온 전반적인 경제활동성의 증가는 실직자가 노동시장 잔류할 가능성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공급의 증가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고학력화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저학력 미취업자의 구직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등 저기능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문제는 고학력화에 따른 경제활동성 증가(노동공급의 증가)와 저학력·저기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동력 수급변화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助敎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64

팩시: (02)886-4231

參 考 文 獻

- 김대일(1997): “실업장기화의 효과분석,” 『KDI 정책연구』, 19, 4.
 _____ (1999a): “한계적 경제활동 참가자와 실업,”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_____ (1999b): “최근 실업증가의 성분분석,”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남재량(1997): 『한국의 실업률 추세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동균(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호(1996):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 제도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고서』, 각년호.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 최희진(1999): 『여성 노동력 증가의 요인분석』, 미출간 논문, 서울대학교.
- Katz, Lawrence, and Kevin M. Murphy(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1**.
- Kim, Dae Il, and Robert H. Topel(1995): “Labor Markets and Economic Growth: Lessons from Korea’s Industrialization, 1970-1990,” L. Katz and R. Freeman(eds.),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rphy, Kevin M., and Robert H. Topel.(1987): “The Evolution of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1968-1985,” *NBER Macroeconomics Annuals*.
- OECD(1996):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Press.
- Topel, Robert H., and Michael Ward(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2**.